

(2020-2) 000 이의신청 심의결과 ('20.3.18. 결정)

□ 사실 관계

- ' 19.4.23. 승용자동차 00보0000(SM6) 취득 후 취득세 면제받음(대체취득 감면)
- ' 19.10.15 과세전 적부심사 불채택 결정
- ' 19.11.05. 00서0000(SM3, 종전 감면받은 자동차) 60일 이내 말소나 이전 등록하지 않아 처분청에서 취득세 0,000,000원 부과고지함
- ' 20. 2. 4. 신청인 이의신청 제기

□ 쟁점 사항

-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는 경우 종전 자동차를 60일 이내 말소 이전하지 않는 경우에 취득세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
- 처분청 : 00군수, 부과금액 : 0,000천원

□ 신청인 주장

- 종전 자동차를 취득하여 국가유공자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다가 이 사건 자동차를 대체취득 하고자 종전 자동차를 제3자에게 명의이전 하였고, 같은 날 신청인 자녀의 통학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시 종전 자동차를 취득한 것으로, 재취득하면서 정상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록 하였으므로 중복으로 면제 혜택을 본 사실이 없으므로,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.

□ 우리도 의견 : 기각

- 국가유공자가 보철용·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하며,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로 하는 것인바,
- 종전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신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면한다면, 국가유공자등에게 동시에 취득세 감면대상 자동차를 2대 허용하게 될 뿐만 아니라, 매년 1대씩 취득세 없이 신규 자동차를 취득할 수 있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이는 감면 자동차를 1대로 한정하겠다는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2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4항의 감면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(행안부 지방세특례제도과-1415, 2016.6.22. 유권해석 참조)으로서, 처분청이 신청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